

##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_산문 부문
-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5:00
- 회의장소 : 나주 본관 중회의실(ZOOM 화상회의)
- 심사위원 : 김덕희, 안준원, 염승숙, 유응오, 유재영, 이주란, 정선임, 정지아, 정혜윤, 최유안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올해로 38회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행사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고 심사 대상작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간 거리[街]로 나와 참여하기엔 어려웠던 사정으로 웅크려 있어야 했던 이야깃거리[文]들이 새로 마련된 거리[間]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켜 게 아닌가 싶다. 지방을 무대로 삼은 작품이 더러 보인 데는 그런 사연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훨씬 더 ‘전국’스러워진 백일장이 된 것만으로 이번 행사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참여자가 늘었고 모든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자도 총원됐다. 그러나 호명해드릴 수 있는 자리는 더 준비하지 못했다. 때문에 수상작을 가리는 토론장은 뜨겁고 시끄러웠다. 심사자들은 저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내세워 후보작을 추천하고 지지했는데 그 몇 가지의 기준들 중 무엇을 더 앞세울 것인가를 놓고 주로 의견이 갈렸다. 양보하고 고집하길 반복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글제를 향한 집중력, 참신성, 완성도, 진정성 등에서 성과를 보이는 작품들에 주목할 수 있었다.

오유경 씨의 ‘미완의 영화’를 지지한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글제 중 ‘영화’를 고른 타 응모작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이야기로 우선 시선을 끌었고, 매끄럽고도 힘 있는 구성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했으며, 작가가 인물에게 쏟은 애정의 깊이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말부를 이끌고 있는 긍정적 의지는 앞에서부터 빚어 내린 맥락에서 단단한 인과로 땅아낸 덕에 ‘예쁜 결말’을 위한 작위성의 함정을 통쾌하게 벗어났다는 점도 많은 심사자들의 손을 들게 했다.

전앤 씨의 ‘영화’는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이야기였다. 그것을 구성해내는 솜씨에서 오랜 수련의 흔적이 엿보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특히 부조리한 세태를 담아 내되 독자가 어느 일방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예리한 시선이 심사자들을 놀라게 했다. 비록 장원에 이르지 못했으나 길고 치열한 토론을 이끌어낸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박효연, 장미자, 최미정 씨의 작품은 각각 더 새로웠고 더 아팠고 더 감동적이었다. 저마다의 변별점을 일궈내는 동시에 글제에 집중해 완성해낸 것만으로 수상권에 모시는 데 손색이 없었다. 박진영, 손규리, 안서희, 원종희, 이동희 씨의 작품은 적은 수의 심사자에게라도 강력한 인상을 준 덕분에 조명되었다. 타 심사자의 애정 어린 감상평은 작품을 다시 뒤져보게 만들었으며 이윽고 공감을 이끌어냈다.

토론에서 언급되었으나 낙선한 작품들을 한 번씩 더 떠올려보며 심사는 마무리되

었다. 모든 작품에서 단어와 문장을 공들여 모으고 거른 성의가 보였다.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일일이 응답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아마 이 부채감은 이번 수상자들이 더 나은 작품을 내어놓을 때 약간이라도 덜어질 것이다. 심사자도 한 때는 응모자였고 낙선자였다. 박수는 수상자에게, 마음은 낙선자에게 보낸다.